

핵심잡지의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Determining Core Journals

김선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determining core journals in a field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citation analysis of the journals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KH).

In order to verify the determinant factors, dividing the articles of the KH journals into their novelty and author's seniority, the following hypotheses were established.

Hypothesis I : When a KH journal publishes more articles on prehistoric and ancient eras than others, the journal will have higher chance to be included in the core journals.

Hypothesis II : When a KH journal publishes more articles by senior researchers than others, the journal will have higher chance to be included in the core journals.

To achieve the purpose, the cited articles found in the two sample journals, namely, Backsan Hakbo and Hanguksa Yongu were analysed during the past 20 years from 1962 to 1981.

Applying the Hirst's Discipline Impact Factor method to the study, Historical Science Impact Factor (HSIF) on the samples itself and the historical era dealt with in the articles and the seniority of the authors during every five-year period.

Based upon the present study to verify the two hypotheses,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reached.

- 1) The most influencing subject matter era on the HSIF of the journal is arranged in prehistoric and ancient, Koryo, Chosun, recent era, and the others by order of era.
- 2) Changing a fringe or semicore journal into a core journal, every HSIF on its article era is grown up and prehistoric and ancient eras are, specially, increased high relatively. Changing a core journal into a fringe or semicore journal, every HSIF is dropped and prehistoric and ancient eras are fallen sharp relatively.
- 3) The most influencing seniority on the HSIF of the journal is the seniors written on prehistoric and ancient eras. Above all, the senior's HSIF on prehistoric and ancient eras are most influencing the changing of the core journal into the fringe or semicore.
- 4) Hypothesis II is not verified in general. The relative connections between the senior's HSIF on each era and the changing of the core journal are verified in part but not in the whole.
- 5) The reason why the HSIF on prehistoric and ancient eras is higher than others can be assumed because the new excavations are continued actively in the present as to the relics and remains on that eras. Accordingly, the HSIF on the new subject matter like archaeology trends to grow up greatly. Between the senior's and junior's HSIF, junior's is higher than senior's except ancient era. That reason can be assumed because juniors try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through their own new viewpoints and sights.

So, it should be studied whether the HSIF on the articles of the new subject matters and viewpoints is influenced to the changing of the core journal or not.

* 동국대학교 도서관
접수일자 1988. 4. 20

I. 서 론

1.1 연구의 동기와 가설의 설정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가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전달전파하는 도서, 학술잡지, 최신정보 주지매체, 팩시밀리 등,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정보전달 매체들은 다양해지고 그 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 전달매체 중, 특히 학술정보의 주요 전달매체인 학술잡지(이하 잡지라 함)는 연구자의 연구결과로 얻은 정보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다른 연구자들에게 전달해 주며, 이를 입수한 연구자는 그 연구의 성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지식논쟁을 위한 중요한 광장이 되고 있다.

잡지는 이와 같이 두가지 몫을 하고 있는데, 즉 첫째는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정보원의 몫이고, 둘째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후속 연구자가 참고로 인용하는 정보수령자의 몫인 것이다.¹⁾

이 두가지 몫으로 인하여, 잡지는 상호간에 인용관계를 가지게 되어 정보의 상호전달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의 상호전달 현상은 특정 주제 분야의 잡지를 대상으로 그 인용문헌을 관찰하고 조사해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어떤 잡지는 다른 잡지보다 더 많이 인용되어 정보원 몫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잡지는 보다 많이 인용하여 정보 수령자의 몫을 하고 있다. 정보원의 몫을 하는 잡지의 특징은 정보수령자의 몫을 하는 잡지보다 높은 인용빈도를 가지고 있으며,²⁾ 특히 정보원 잡지 중의 몇몇 소수의 잡지는 매우 높은 인용빈도

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잡지군을 인용빈도에 의한 핵심잡지군이라 부른다.³⁾

핵심잡지가 잡지의 구입과 선택에 있어서, 사서나 연구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잡지가 인용빈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그 동안 별로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핵심잡지의 인용빈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어느 잡지의 인용빈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변잡지가 핵심잡지로 되며,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발상아래, 특히 핵심잡지의 인용빈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싶은데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학분야 핵심잡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잡지기사의 주제와 관련된 시대와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에 있다고 보고 그 인용빈도를 조사하여 밝혀보기로 한다.

사학자가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참고로 하는 자료는 주로 과거의 유물, 유적이며 특히 문헌속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나타났으나 하더라도 불충분한 증거들이므로 적절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움은 역사연구의 일반적 문제를

1) Louis V. Xhignesse and Charles E. Osgood, "Bibliographical Ci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sychological Journal Network in 1950 and in 1960." *American Psychology*, V. 22, 1967, pp. 778

2) Graeme Hirst and Nadia Talent, "Computer Science Journals-Iterated Citation Analysis", *IEEE Transaction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V. PC-20, No. 4, 1977, pp. 234.

3) Graeme Hirst, "Discipline Impact Factors: A Method for Determining Core Journal List", *JASIS*, V. 29, No. 4, 1978, pp. 171.

이며, 그것은 특히 선사시대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심각하다. 따라서 사학자는 불가피하게 선행 연구의 발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현재에서 먼 시대를 다루는 경우에 특히 그렇고, 연구경력이 많은 중견학자들의 저술이 집중적으로 인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발전시킨 다음의 두가지 가설을 본 연구에서는 검증하려는 하는 것이다.

(1) 사학잡지는 그 잡지의 기사 중, 자료가 적은 선사시대와 고대를 다룬 기사가 많을 때 핵심잡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

(2) 사학잡지는 그 잡지의 기고자 중, 중견학자가 많을 때 핵심잡지로 될 가능성이 높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분야의 주변잡지나 준핵심잡지가 핵심잡지로 지위가 바뀔 때, 그 잡지를 핵심잡지로 바뀌게 하는 요인이 첫째, 기사의 관련시대가 선사시대와 고대가 많아질 때, 둘째, 기고자 중 중견학자가 많아질 때 임을 밝히는데 있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사학잡지 중, 대학논문집, 연구보고서 및 시사교양지를 제외한 순수한 사학잡지만을 골라 인용빈도에 의한 핵심잡지군을 선정 한 후, 다시 「백산학보」와 「한국사연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창간호에서 부터 1981년 말호 까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허스트(Graeme Hirst)의 핵심잡지군 선정방법을 이용하여, 사학잡지의 인용빈도를 구하고 핵심잡지군을 선정하였다.

둘째, 이 잡지군에서 다시, 본 연구에서 실

제로 조사할 대상으로 「백산학보」와 「한국사연구」를 선정하였다.

셋째, 표본잡지 기사의 관련시대와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을 조사하고, 그것에 비추어 인용빈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위의 분석결과와 잡지의 인용빈도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하였다.

1.4 주요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핵심잡지군

주요잡지군 또는 중심잡지군이라고도 하며⁴⁾ 특정 주제분야를 연구하는데 있어, 해당주제에 가장 중요한 이론이나 개념이 발표됨으로써, 매우 높은 빈도로 인용되는 잡지군이다. 이 잡지군에 속한 잡지를 핵심잡지라 한다.

(2) 준핵심잡지군

핵심잡지군보다는 낮으나 비교적 높은 빈도로 인용되는 잡지군⁵⁾이다.

(3) 주변잡지군

어느 주제분야의 모든 잡지 중에서, 핵심잡지와 준핵심잡지를 제외한 나머지 잡지 전체를 말하며, 비교적 낮은 빈도로 다른 잡지에 인용되나 그 종수는 매우 많다.

(4) 시발잡지

핵심잡지의 선정에 있어서, 반복적 기법에 사

4) Heartstill Young, ed.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3. pp.61.

5) Mark Oromaner, "The Diffusion of Core Publications in American Sociology." JASIS. V. 28, No.1. 1977, pp.36..

용될 첫번째 잡지이며 누구나 그 잡지의 권위와 명성을 공감하는 중요한 잡지이다. 이 잡지의 목적은 제일 먼저, 일정기간동안 그 잡지의 기사에서 인용하는 모든 다른 잡지의 인용회수를 조사하기 위함⁶⁾이다.

(5) 인용빈도

일정기간 동안에 어느 사학잡지의 한 기사가 다른 사학잡지에 인용되는 빈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그것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일정기간의 잡지기사 인용총회수} / \text{일정기간의 잡지기사 총수}$$

위에서 인용회수가 산출된 일정기간이나 기사총수가 산출된 기간의 연도는 연구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연도는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나 인용총회수가 산출된 일정기간의 연도가 기사총수가 산출된 기간의 연도보다 더 많을 수는 없다.

즉, 인용빈도란 일정기간 동안에 어느 사학잡지의 기사 1편이 다른 사학잡지에 인용되는 평균수치이다.⁷⁾

(6) 인용된 회수

어느 잡지기사가 다른 잡지에 인용되는 회수이다.

(7) 학문적 경력

본 연구에서는 잡지의 기고자를 구분하여,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연구자를 중견학자라 하고, 그 밖의 연구자를 소장학자라 한다.

II. 선행연구의 개관

특정 주제의 중요한 잡지를 알아보기 위한 핵

심잡지일람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잡지의 인용 빈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1975년에 ISI(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SCI(Science Citation Index)와 더불어 JCR(Journal Citation Reports)를 새롭게 편집하여 발간하면서 부터, 연구자의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⁸⁾

브래트포드 법칙과 같은 기존의 계량서지적 방법은 잡지의 핵영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필요⁹⁾로 하였으나, JCR은 SCI나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수록된 잡지의 평균인용 빈도를 표시해 줌으로써, 연구자가 이를 보고 핵심잡지일람표를 작성하는데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수작업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¹⁰⁾

코켈(A.E. Cawkell)은 JCR의 평균인용 빈도를 이용하여 음향학잡지의 정보유통네트워크(Information Transfer Network)를 도표화하고, 그 결과를 잡지의 실제적 인용빈도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JCR의 평균인용빈도는 모든 학문분야의 잡지에서 인용된 빈도를 가지고, 조사대상 잡지에 수록된 총기사수로 나누어 구함으로써, 특정 주제의 이용자에게는 중요한 핵심잡지를 파악하는데 특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

6) Graeme Hirst and Nadia Talent, 전계서, pp.234.

7) Graeme Hirst, 전계서, pp.171.

8) A.E. Cawkell, "Evaluating Scientific Journals with Journal Citation Report - A Case Study in Acoustics," JASIS.V.29, No.1, 1978, pp.41.

9) Andrew Pope, "Bradford's Law and the Periodical Literature of Information Science," JASIS.V.26, No.4, 1975, pp.207.

10) Graeme Hirst, 전계서, pp.171.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¹¹⁾

허스트(Graeme Hirst)는 JCR의 평균인용빈도를 가지고 핵심잡지일람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세가지로 지적하는데, 첫째는 과거에 한번이라도 핵심잡지가 되었던 잡지는 계속해서 해당주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최신성이 부족한 것이고, 둘째는 자주 인용되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경험으로 터득한 중요한 잡지가 제외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잡지의 다양한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인용회수만을 가지고 평균인용빈도를 계산함으로써, 부피가 큰 잡지가 불공평한 이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¹²⁾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JCR의 평균인용빈도를 구하는 공식을 수정하여 얻은 인용빈도를 학문분야별 인용빈도(Discipline Impact Factor)라 부르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하였으며, 그 특징은 JCR의 평균인용빈도가 전 학문분야의 인용회수를 대상으로 하여 구해지는 빈도인 반면에, 그 자신의 학문분야별 인용빈도는 제한된 특정 학문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해지는 빈도인 것이다.¹³⁾

허스트는 탈런트(Nadia Talent)와 공동으로 자신의 방법을 전산학에 적용하여 전산학분야 잡지의 인용빈도를 구하고, 이를 근거로 핵심잡지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일람표에 포함된 잡지들을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핵심잡지군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의 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 잡지들은 이용자가 생각하는 핵심잡지군과 매우 근사하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이 방법이 연구자나 사서의 잡지선택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허스트는 자신의 핵심잡지일람표 작성방법의 장점은 신속하고 간편하며, 주제의 크기에 상관

없이 전산처리로나 수작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라 하였다.¹⁴⁾

서머즈(Edward G. Summers)는 독서연구분야의 잡지를 대상으로, 허스트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용빈도를 구한 후, 핵심잡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잡지간의 인용관계를 조사하였다.

서머즈는 핵심잡지 일람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허스트의 방법이 사서나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잡지의 순위결정이나 학술단체와 기관의 직관적 판단, 그리고 도서관의 제한된 이용자 통계 등으로 핵심잡지를 선정하는 방법보다 경제적이고 우수하다고 하였다.¹⁵⁾

Ⅲ.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허스트의 핵심잡지일람표 작성방법에 따라, 시발잡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여야할 절차이다.¹⁶⁾ 잡지의 인용빈도를 조사하는데 있어, 시발잡지를 선정하는 것은 연구의 성과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시발잡지의 선정에 있어서 본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제삼자인 역사학도의 도움을 받아 시발잡지로 「역사학보」와 「사학연구」를 결정하였다.

사학잡지의 인용빈도를 구하기 위하여, 시발잡지에 인용된 잡지의 인용회수 조사기간은 2

11) A.E. Cawke, 전게서, pp. 41 - 46.

12) Graeme Hirst, 전게서, pp. 171.

13) Graeme Hirst, 전게서, pp. 171.

14) Graeme Hirst and Nadia Talent, 전게서, pp. 233-238.

15) Edward G. Summers, "A Review and Application of Citation Methodology to Reading Research Journal Literature," JASIS.V.35 No.6, 1984, pp.332-343.

16) Graeme Hirst and Nadia Talent, 전게서, p.235.

< 표 1 >

핵심잡지일람표

	1962-1966년		1967-1971년		1972-1976년		1977-1981년	
	잡지명	인용빈도	잡지명	인용빈도	잡지명	인용빈도	잡지명	인용빈도
1	사학연구	0.375	동국사학	1.000	역사학보	1.085	역사학보	0.973
2	동국사학	0.313	고문화	0.800	고고학	1.000	백산학보	0.967
3	동방학지	0.263	고고학	0.750	사학연구	0.944	사학연구	0.846
4	사총	0.231	역사학보	0.621	한국사연구	0.829	한국사론	0.697
5	역사학보	0.228	진단학보	0.588	고문화	0.667	진단학보	0.634
6	향토서울	0.211	향토서울	0.444	진단학보	0.522	동양문화	0.500
7	진단학보	0.170	사학연구	0.383	사원	0.500	한국사연구	0.463
8	역사교육	0.130	사총	0.173	미술자료	0.483	백제문화	0.400
9	미술자료	0.111	백산학보	0.143	역사교육	0.375	한국학보	0.398
10	아세아연구	0.072	한국사연구	0.143	동방학지	0.364	대동문화연구	0.387
11	고고미술	0.014	역사교육	0.130	백산학보	0.360	역사교육	0.364
12			고고미술	0.106	동아문화	0.350	고문화	0.308
13			동아문화	0.100	대동문화연구	0.316	한국민속학	0.304
14			아세아연구	0.089	고고미술	0.292	사총	0.282
15			동방학지	0.071	사학지	0.241	영남사학	0.250
16					한불연구	0.235	한국고고학보	0.241
17					건대사학	0.214	동국사학	0.207
18					사총	0.214	사학지	0.200
19					아세아연구	0.195	대구사학	0.185
20					동양학	0.167	신라가야문화	0.174
21					문화재	0.164	동아문화	0.164
22					한국학보	0.148	동양사학연구	0.158
23					동양문화연구	0.107	문화재	0.156
24							마한백제문화	0.143
25							동방학지	0.141

주) 인용빈도의 수치는 해당 잡지기사 1편이 5년동안 기타의 사학잡지에 인용되어지는 평균 수치임.

년, 인용된 잡지의 기사수 조사기간은 5년으로 하여, 시발잡지의 조사기간은 1965~1966년, 1970~1971년, 1975~1976년, 그리고 1980~1981년으로 4회 조사하였으며, 시발잡지에 인용된 잡지의 기사수 조사기간은 1962~1966

년, 1967~1971년, 1972~1976년, 그리고 1977~1981년으로 5년을 주기로 하여 1962년부터 1981년까지 20년간을 조사한 후, 매 5년마다의 핵심잡지 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된 잡지의 지명과 기사수는 부록 1과 같고, 5년을 주기로 하여 조사된 잡지의 인용빈도는 부록 2,3,4,5에 표시되어 있다.

부록 2,3,4,5에 나타난 잡지명은 시발잡지에 의해, 5년을 주기로 조사하여 총 3회 이상 인용된 잡지만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부록에 나타난 모든 잡지를 조사·분석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3.1 핵심잡지 일람표의 작성

조사된 잡지의 인용빈도를 연도별로 배열하면, 표 1과 같으며 이 표에서 1962년 부터 1981년 까지 5년마다 잡지의 인용빈도와 핵심잡지를 알 수 있다.

핵심잡지 일람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2~1966년의 핵심잡지는 인용빈도의 기준이 0.263으로 3종이 있고 준핵심잡지는 0.211로 역시 3종이 있으며, 1967~1971년에는 핵심잡지의 인용빈도 기준이 0.750으로 3종이 있고 준핵심잡지는 0.383으로 4종이 있다. 또한 1972~1976년의 핵심잡지 기준은 0.667로 5종이 있고 준핵심잡지는 0.350으로 7종이 있으며, 1977~1981년의 핵심잡지는 그 기준이 0.634로 5종이 있고 준핵심잡지는 0.364로 7종이 있다.

따라서 핵심잡지 일람표인 표 1에 의하면, 잡지의 종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핵심잡지와 준핵심잡지의 종수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3.2 표본의 선정

사학분야의 핵심잡지 일람표인 표 1에 나타나 있는 모든 잡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인용빈도의 변화요인을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을 보고 핵심잡지군과 준핵심잡지군 사이를 오고간 잡지의 유무를 조사하여, 이에 해당되는 잡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잡지는 「백산학보」와 「한국사연구」이다.

「백산학보」는 「백산학회」에 의해, 1966년에 창간되었으며, 1967~1971년에는 주변잡지가 되었고, 1972~1976년에는 준핵심잡지가 되었으며, 1977~1981년에는 핵심잡지가 되었다. 또한 「한국사연구」는 「한국사학회」에 의해, 1968년에 창간되어, 1967~1971년에는 주변잡지, 1972~1976년에는 핵심잡지, 그리고 1977~1981년에는 준핵심잡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이 두 잡지는 인용빈도의 변화에 따라 주변잡지, 준핵심잡지, 그리고 핵심잡지로 각각 그 지위가 변동됨으로써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

3.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백산학보」는 창간호에서 부터 제 26권까지, 연도로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16년 동안, 그리고 「한국사연구」는 창간호부터 제 35권까지, 연도로는 1968년부터 1981년까지 14년 동안의 기고자와 기사를 학문적 경력과 관련시대로 구분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잡지의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을 연도별로 조사해 보면 표 2와 같다.

기고자의 연도별 학문적 경력을 보여주는 표 2에서 연도의 첫번째 기간은 1966~1971년으로 6년간

인데, 이것은 「백산학보」가 1966년에 창간되었기 때문에 「백산학보」의 창간연도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며, 이후의 연도구분은 표2와 같이 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잡지의 기사도 그 주제를 관련시대별로 나누어 조사하여 표3을 작성하였다.

< 표 2 > 기고자의 연도별 학문적 경력

잡지명 연도	백산학보		한국사연구		계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계
1966 - 1971	58	26	16	12	74	38	112
1972 - 1976	25	25	24	17	49	42	91
1977 - 1981	10	20	36	46	46	66	112
계	93	71	76	75	169	146	315

< 표 3 > 기사의 관련시대별 분포

연도	관련시대 잡지명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계
		(기사수)	(기사수)	(기사수)	(기사수)	(기사수)	(기사수)	
1966-1971	백산학보	10	27	3	13	20	11	84
	한국사연구	3	1	5	14	5	0	28
1972-1976	백산학보	12	11	5	9	7	6	50
	한국사연구	7	5	6	12	11	0	41
1977-1981	백산학보	4	6	6	8	4	2	30
	한국사연구	13	13	21	18	17	0	82
계		49	63	46	74	64	19	315

기사의 관련시대별 분포를 보여주는 표3에서 기사의 관련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고고학 분야 주제를 다룬 기사는 관련시대에서 선사시대에 포함시켰다.¹⁷⁾ 둘째, 고대국가의 형성 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고대에 포함시켰고, 세째, 고려조는 고려시대에, 조선조

는 조선시대에 포함시켰으며, 네째, 갑오경장 이후부터 일제식민시대까지를 근세에 포함시켰다.¹⁸⁾ 끝으로 전 시대를 다루거나, 동양사, 서

17) 이홍직 편. 국사대사전. 서울 : 지문각, 1962. pp. 729.

18) 본 연구에서는 「역사학보」시대구분인 고대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시대, 조선후기시대, 근세시대, 동양사, 서양사 그리고 고고학을 참고로 하여 잡지의 기사를 관련시대별로 나누었다.

양사, 그리고 현대사를 다룬 기사는 모두 총괄에 포함시켰다.

자료조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조사대상 잡지의 어떤 기사가 핵심잡지 일람표인 표 1에 들어있는 잡지에 의해 몇번 인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잡지가 주로 인용되어지는 핵심잡지를 부록 3, 4, 5에서 조사하여 보면, 「역사학보」, 「사학연구」, 「진단학보」와 조사대상 잡지인 「백산학보」와 「한국사연구」이다. 이들 5종의 잡지가 조사대상 잡지의 기사인용 총회수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연도별로 조사하

여 보면, 1966~1971년에는 약 80%, 1972~1976년에는 거의 100%, 1977~1981년에는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조사대상 잡지의 기사인용회수는 주로 이들 5종의 잡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5종의 잡지에서 조사대상 잡지의 어떤 시대 기사를 몇번 인용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표 4로 나타내었다.

표 4에서, 그 인용회수는 인용하는 이들 5종의 잡지에 기사를 쓴 기고자가 인용되는 조사대상 잡지에 이미 자신이 썼던 기사를 인용하였거나, 「백산학보」나 「한국사

< 표 4 >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회수

인용한연도		1966 - 1971						1972 - 1976						1977 - 1981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인용된연도	관련시대 잡지명																		
1966-1971	백산학보	2	1	1															
	한국사연구			1	1														
1972-1976	백산학보	4	5	1	6			4	1										
	한국사연구	8	4	7	11			9	2	1	2								
1977-1981	백산학보	8	9	3	3	1	1	9	9			1			1	2		2	
	한국사연구	1	3	5	4	2		2	3	3	3	1		2	5	4	2	1	

연구」가 자신의 잡지를 인용한 회수는 제외된 순수한 인용회수이다. 즉 기고자나 잡지의 자체인용의 회수를 제외한 인용회수인 것이다.

IV. 자료의 분석

핵심잡지는 표 1의 핵심잡지일람표에서와 같이 인용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잡지의 인용빈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알면, 잡지가 핵심잡지군에 포함되고, 혹은 탈락되는 요인을

밝힐 수 있다.

핵심잡지일람표에 있는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는 표 5와 같으며, 「백산학보」는 1977~1981년에, 그리고 「한국사연구」는 1972~1976년에 각각 핵심잡지군에 포함되기까지 준핵심잡지군과 주변잡지군에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조사된 네가지의 표 2, 3, 4, 5를 상호결합하여 잡지기사의 관련시대와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5〉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

잡지명 \ 연도	1967-1971	1972-1976	1977-1981
	백산학보	0.143	0.360
한국사연구	0.143	0.829	0.463

4.1 잡지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회수인 표4에서 처럼 기사의 인용은 조사연도인 5년 안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잡지기사의 인용빈도를 알기 위해서는 각 연도별로 잡지의 기사수와 기사의 인용회수를 누계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

기사의 관련시대별 분포인 표3과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회수인 표4를 가지고 조사대상 잡지의 기사수와 기사인용회수를 누계 처리한 것이 표6이다.

표6을 조사해 보면, 기사수에 있어서는 조선시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근세시대와 고대, 그리고 선사시대와 고려시대 순서로 되어 있고, 기사의 인용회수에 있어서는 고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선사시대이며,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서로 되어 있다. 또한 선사시대, 고대, 그리고 고려시대의 기사수와 기사의 인용회수가 전체의 기사수와 기사의 인용회수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보면, 기사수에 있어서 선사시대가

〈표 6〉 기사수와 기사가 인용된 회수의 누계

연도	관련시대 잡지명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계	
		기사수	인용회수	기사수	인용회수	기사수	인용회수	기사수	인용회수	기사수	인용회수	기사수	인용회수	기사수	인용회수
		1966-1971	백산학보	10	2	27	1	3	1	13		20		11	
	한국사연구	3		1	1	5		14		5				28	1
1972-1976	백산학보	22	8	38	6	8	1	22	6	27		17		134	21
	한국사연구	10	17	6	6	11	8	26	13	16				69	44
1977-1981	백산학보	26	17	44	19	14	5	30	3	31	4	19		164	48
	한국사연사	23	5	19	11	32	12	44	9	33	4			151	41
	계	49	22	63	30	46	17	74	12	64	8	19		315	89

16%, 고대가 20%, 그리고 고려시대가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사의 인용회수에 있어서는 선사시대가 25%, 고대가 34%, 그리고 고려시대가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가 기사수에 있어서 차지하는 백분율을 전체의 50%이고 기사

의 인용회수에 있어서는 78%이다.

따라서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의 기사는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인용이 많이 되고 있으며, 조선시대, 근세와 총괄에서는 기사수는 많으나 인용이 적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련시대를 선사시대와 고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보면, 기사수에 있어서는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사의 인용회수에 있어서는 59%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사시대와 고대같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기사의 인용회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사수와 기사의 인용회수의 누계인 표 6에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를 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인용빈도는 표 6에 나타나 있는 각 관련시대의 인용회수를 각 관련시대의 기사수로 나누어 구한 수치로서, 조사대상 잡지의 관련시대별 기사 1편이 조사기간(5년) 중에 인용되어지는 평균회수이다.

표 7을 분석해 보면, 선사시대, 고대 그리고 고려시대의 인용빈도가 각각 0.45, 0.48 그리고 0.37로 높게 나타났고, 조선시대와 근세는 0.16과 0.13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총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 표 7 >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

연 도	관 련 시 대	선 사	고 대	고 려	조 선	근 세	총 괄	계
	잡 지 명							
1966-1971	백 산 학 보	0.20	0.04	0.33				0.05
	한 국 사 연 구		1.00					0.04
1972-1976	백 산 학 보	0.36	0.16	0.13	0.27			0.16
	한 국 사 연 구	1.70	1.00	0.73	0.50			0.64
1977-1981	백 산 학 보	0.65	0.43	0.36	0.10	0.13		0.29
	한 국 사 연 구	0.22	0.58	0.38	0.21	0.12		0.27
계		0.45	0.48	0.37	0.16	0.13		0.28

따라서 잡지의 기사인용은 선사시대, 고대 그리고 고려시대의 기사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표 7의 자료를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인 표 5와 대조하여 보면 핵심잡지의 변화요인을 알 수 있다.

1972~1976년에 「한국사연구」는 핵심잡지가 되었는데, 이 때 표 7에 나타난 각 관련시대별 인용빈도를 보면, 선사시대가 1.70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고대로 1.00, 고려시대 0.73 그리고 조선시대의 0.50 순서로 나타나

있다. 또한 「백산학보」도 1977~1981년에 핵심잡지가 되었는데, 이때에도 선사시대의 인용빈도가 0.65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고대로 0.43이고 고려시대 0.36이며, 근세 0.13, 조선시대 0.10 순서로 나타나 있다.

「한국사연구」는 주변잡지에서 핵심잡지로 지위가 바뀔 때, 모든 관련시대별 인용빈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선사시대의 인용빈도가 급증하였다. 또한 「백산학보」는 준핵심잡지에서 핵심잡지로 지위가 바뀔 때, 모든 관련시대별 인용빈도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선사시대의 인

용빈도가 0.36에서 0.65로, 고대가 0.16에서 0.43으로 큰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잡지의 인용빈도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한국사연구」는 1977 ~ 1981년에 핵심잡지에서 준핵심잡지로 지위가 바뀌었는데, 이 때 선사시대의 인용빈도는 1.70에서 0.22로, 고대는 1.00에서 0.58로, 고려시대는 0.73에서 0.38로, 그리고 조선시대는 0.50에서 0.21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선사시대의 인용빈도는 급락하여 인용빈도가 낮은 조선시대의 인용빈도와 비슷하게 되었다.

기사수와 기사의 인용회수의 누계인 표 6과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인 표 7의 분석을 통하여, 잡지의 인용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의 관련시대는 첫째가 선사시대와 고대이고, 둘째는 고려시대이며, 조선시대와 근세는 그 영향력이 매우 낮으며, 총괄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변잡지나 준핵심잡지가 핵심잡지로 지위가 바뀌었을 때에는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의 인용빈도가 크게 올랐으며, 특히 선사시대의 인용빈도가 가장 높고, 가장 크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핵심잡지가 준핵심잡지로 지위가 바뀌었을 때에는 선사시대의 인용빈도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선사시대의 인용빈도는 주변잡지나 준핵심잡지가 핵심잡지로 자리바꿈을 하는데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핵심잡지가 준핵심잡지로 자리바꿈을 할 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4.1.1 잡지의 인용빈도와 잡지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인 표 5에 있는 자료와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인 표 7에 있는 자료를 대조하여 보려는, 잡지의 인용

빈도가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의 상관관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표 5의 자료를 변수 y , 표 7의 자료를 변수 x 로 하여, 이 두 변수의 회귀직선을 구하고, 그 회귀직선 주위에 표 5와 표 7의 자료가 어느정도 집중되어 있는지를 수량적으로 나타내 주는 상관관계를 아래의 상관계수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r = \frac{\sum(x-\bar{x})(y-\bar{y})}{\sqrt{\sum(x-\bar{x})^2} \sqrt{\sum(y-\bar{y})^2}}$$

여기서,

r = 상관계수, x = 잡지의 인용빈도, \bar{x} = 잡지의 평균인용빈도, y =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 그리고 \bar{y} = 기사의 관련시대별 평균인용빈도이다.

잡지의 인용빈도와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의 상호관련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 8에 표시하였다.

표 8에 나타난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¹⁹⁾

- $r \geq 0.7$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 $r \leq -0.7$ (음으로)
- $0.4 \leq r \leq 0.7$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0.7 \leq r \leq -0.4$ (음으로)
- $0.2 \leq r \leq 0.4$ 조금 상관관계가 있다. $-0.4 \leq r \leq -0.2$ (음으로)
- $0.0 \leq r \leq 0.2$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0.2 \leq r \leq 0$ (음으로)

19) 박두일, 이정복 공저. 정보처리를 위한 응용통계. 서울 : 홍능과학출판사, 1984. pp.28.

따라서 표 8을 분석해 보면, 잡지의 인용빈도와 선사시대와 조선시대의 인용빈도 간에는 조사대상 잡지 모두, 정비례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 분석에서 조선시대의 인용빈도는 잡지의 인용빈도에 낮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잡지의 인용빈

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선사시대의 인용빈도만이 잡지의 인용빈도와 직접적인 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사시대의 인용빈도가 오르면, 잡지의 인용빈도도 오르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 표 8 > 잡지의 인용빈도와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빈도의 상관관계

관련시대 잡지명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상관	백산학보	0.99	1.00	0.35	1.00	0.97	
계수	한국사연구	0.93	0.04	1.00	1.00	-0.04	

4.2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빈도

잡지기사에 있어서 중견학자의 기사와 소장학자의 기사가 잡지의 인용빈도와 핵심잡지의 변화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빈도를 각 관련시대별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기사의 관련시대별 분포인 표3의 자료를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로 분석하여 보면 표9와 같다.

< 표 9 >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 누계

연도	관련시대 학문적 경력 잡지명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계		총계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중견 (명)	소장 (명)	
		1966-1971	백산학보	8	2	18	9	2	1	4	9	16	4	10	1	
	한국사연구	3		1		2	3	7	7	3	2			16	12	28
1972-1976	백산학보	5	7	6	5	2	3	5	4	6	1	1	5	25	25	50
	한국사연구	5	2		5	3	3	5	7	11				24	17	41
1977-1981	백산학보	1	3	1	5	2	3	5	4	1	3		2	10	20	30
	한국사연구	9	4	5	8	8	13	9	9	5	12			36	46	82
계	백산학보	14	12	25	19	6	8	14	16	23	8	11	8	93	71	164
	한국사연구	17	6	6	13	13	19	21	23	19	14			76	75	151
총계		31	18	31	32	19	27	35	39	42	22	11	8	169	146	315

표 9도 잡지의 기사는 조사연도인 5년 이전의 기사도 인용되고 있음으로써, 기사수와 기사의 인용회수 누계인 표 6과 같이 누계처리하여야 한다.

표 10은 조사대상 잡지의 연도별 시대별 학문적 경력을 나타내는 누계표이다. 표 10에 나

타난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보면, 중견학자는 근세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조선시대, 선사시대와 고대이고 고려시대가 가장 적다. 또한 소장학자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대, 고려시대, 그리고 근세이며 선사시대에 제일 적다.

< 표 10 >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 누계

연도	관련시대 잡지명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계		총계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966-1971	백산학보	8	2	18	9	2	1	4	9	16	4	10	1	58	26	84
	한국사연구	3		1		2	3	7	7	3	2			16	12	28
1972-1976	백산학보	13	9	24	14	4	4	9	13	22	5	11	6	83	51	134
	한국사연구	8	2	1	5	5	6	12	14	14	2			40	29	69
1977-1981	백산학보	14	12	25	19	6	8	14	16	23	8	11	8	93	71	164
	한국사연구	17	6	6	13	13	19	21	23	19	14			76	75	151
계		31	18	31	32	19	27	36	39	42	22	11	8	169	146	315

< 표 11 >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회수

학문적 연도	경력 잡지명	인용한 연도																	
		관련시대		1966 ~ 1971					1972 ~ 1976					1977 ~ 1981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최괄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1966-1971	중견	백산학보	2	1															
	중견	한국사연구				1													
	소장	백산학보			1														
	소장	한국사연구			1														
1972-1976	중견	백산학보	4	2	1	5			4	1									
	중견	한국사연구	8	4	1	3			8		1	1							
	소장	백산학보		3		1													
	소장	한국사연구			6	8			1	2		1							
1977-1981	중견	백산학보	6	8	3		1	1	5	7		1			1				
	중견	한국사연구	1	3		1			1	1	1	1	1			4	1	1	
	소장	백산학보	2	1		3			4	2							2		2
	소장	한국사연구			5	3	2		1	2	2	2			2	1	3	1	1

기사의 관련시대별 인용회수인 표 4의 자료를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로 다시 세분하여 그 인용회수를 나타낸 것이 표 11이다.

표 11도 기사수와 기사의 인용회수 누계인 표 6이나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 누계인 표 10과 같은 조건이므로 누계처리하여야 한다.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회수의 누계인 표 12를 보면 고대의 중견학자의 인용회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선사시대 중견학자와 고려시대 소장학자, 그리고 선사시대 소장학자와 조선시대 소장학자 순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회수는 고대, 선사시대 중견학자의 인용회수와 고려, 선사, 조선시대 소장학자의 인용회수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회수 누계

인 표 12의 자료를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 누계인 표 10의 자료로 나누어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빈도를 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 나타난 인용빈도를 분석해 보면, 고대시대 중견학자가 0.77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선사시대의 소장학자로 0.56, 고려시대 소장학자의 0.44, 그리고 선사시대 중견학자의 0.42 순서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인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선사시대의 중견학자와 소장학자, 고대의 중견학자, 그리고 고려시대의 소장학자가 쓴 기사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잡지의 인용빈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관련시대별 학문적 경력은 첫째가 고대의 중견학자이고, 둘째가 선사시대의 소장학자이

< 표 12 >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회수 누계

연도	학문적 경력	관련시대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잡지명						
1966-1971	중견	백산학보	2	1				
		한국사연구				1		
	소장	백산학보		1				
		한국사연구		1				
1972-1976	중견	백산학보	8	3	1	5		
		한국사연구	16	4	2	4		
	소장	백산학보		3		1		
		한국사연구	1	2	6	9		
1977-1981	중견	백산학보	11	16	3	1	1	1
		한국사연구	2	8	2	3	1	
	소장	백산학보	6	3	2	3	2	
		한국사연구	3	3	10	6	3	
계	중견		13	24	5	4	2	1
	소장		9	6	12	9	5	

며, 세계는 고려시대의 소장학자와 선사시대의 중견학자 순서이다.

그리고 표 13 을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인 표 5 와 대조하여 보면, 「백산학보」가 준핵심 잡지에서 핵심잡지로 바뀌었을 때, 조선시대 중견학자의 인용빈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시대의 중견학자와 소장학자의 인용빈도가 올랐으며, 그 중에서도 선사시대와 고대의 중견학자의 인용빈도가 각각 0.79 와 0.64 로 제일 높음으로써 잡지의 인용빈도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사연구」도 주변잡지에서 핵심잡지로 바뀌었을 때, 특히 고대의 중견학자의 인용빈도가 4.00 으로, 선사시대 중견학자와 고려시대의 소장학자가 각각 2.00 으로 상승하여 잡지의 인용빈도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미

쳤다.

또한 「한국사연구」가 핵심잡지에서 준핵심잡지로 바뀌었을 때, 관련시대별 학문적 경력의 인용빈도를 조사하여 보면, 선사시대의 소장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시대의 중견학자와 소장학자의 인용빈도가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선사시대의 중견학자의 인용빈도가 2.00 에서 0.12 로 급락하여 잡지의 인용빈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잡지의 인용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고자의 관련시대별 학문적 경력은 선사시대와 고대의 중견학자의 인용빈도와 선사시대와 고려시대의 소장학자의 인용빈도이며, 특히 선사시대의 중견학자의 인용빈도는 핵심잡지의 인용빈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표 13 >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빈도

연도	관련시대 학문적 경력 잡지명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1966-1971	백산학보	0.25		0.06			1.00				
	한국사연구						0.14	0.14					
1972-1976	백산학보	0.62		0.13	0.21	0.25		0.56	0.08				
	한국사연구	2.00	0.50	4.00	0.40	0.40	2.00	0.33	1.29				
1977-1981	백산학보	0.79	0.50	0.64	0.16	0.50	0.25	0.07	0.19	0.04	0.25	0.09	
	한국사연구	0.12	0.75	1.33	0.38	0.15	0.77	0.14	0.67	0.05	0.25		
계		0.42	0.56	0.77	0.14	0.26	0.44	0.11	0.23	0.05	0.23	0.09	

4.2.1 잡지의 인용빈도와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빈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인 표 5 의 자료와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빈도인 표 13 의 자료를 앞의 4.1.1 에 이용한 상관관계수 공식에 대입하여 상관계수를 구하고, 상호 어떠한 관

계에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4 에서는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와 선사시대, 고대, 고려시대의 중견학자와 조선시대의 소장학자의 인용빈도가 매우 높은 정비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4 > 조사대상 잡지의 인용빈도와 기사의 학문적 경력별 인용빈도의 상관관계

	관련시대 학문적경력 잡지명	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세		총괄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중견	소장
		상관 계수	백산학보	0.89	0.97	0.99	0.50	0.96	-0.50	-0.15	0.99	0.97	0.97
	한국사연구	0.91	0.62	0.99	0.87	1.00	0.99	0.82	1.00	-0.04	-0.04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사학분야 잡지의 인용빈도를 조사·분석하여, 주변잡지나 준핵심잡지가 핵심잡지로, 또는 핵심잡지가 준핵심잡지나 주변잡지로 그 지위가 바뀌는 요인이 잡지기사의 관련시대와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잡지의 인용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사의 관련시대는 선사시대와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근세의 순이며, 시대의 구분없이 문제를 다룬 기사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주변잡지나 준핵심잡지가 핵심잡지로 그 지위가 바뀔때에는 모든 관련시대의 인용빈도가 증가하며, 특히 먼 과거를 다룬 기사의 인용빈도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다. 또한 핵심잡지가 준핵심잡지로 바뀔 때에는 모든 관련시대의 인용빈도가 떨어지며, 먼 과거를 다룬 기사의 인용빈도가 비교적 많이 감소한다.

(3) 잡지의 인용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은 선사시대와 고대의 중견학자이며, 특히 그들의 선사시대에 관련된 기사의 기고가 핵심잡지의 지위를 바꾸는데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중견학자의 기사가 많이 인용되고 따라서 중견학자의 기고가 증가할 때 사학분야의 잡지는 준핵심잡지에서 핵심잡지로 그 지위가 변동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일관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5) 기사의 관련시대 중, 선사시대와 고대의 인용빈도가 높은 것은 최근 유물과 유적에 대한 발굴보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학과 같은 새로운 주제분야의 기사가 많이 인용되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기고자의 학문적 경력 중, 고대를 제외한 소장학자의 인용빈도가 높은 것은 이들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견학자의 기사를 인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제분야를 다룬 기사와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서 쓴 기사의 인용빈도가 잡지의 지위바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조사된 잡지의 지명 및 기사수

< 부록 1 >

학술잡지명	발행처	창간 년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총기사 수
건대사학	건국대	1971	-	-	-	-	-	-	-	-	-	4	4	4	3	0	3	0	0	0	0	0	18
경희사학	경희대	1967	-	-	-	-	-	6	0	0	7	0	7	4	4	0	0	0	0	0	17	0	45
고고미술	한국미술사학회	1960	102	84	90	76	69	53	67	12	14	14	9	14	15	12	39	10	62	11	21	21	795
민족문화	민족문화추진회	1975	-	-	-	-	-	-	-	-	-	-	-	-	-	6	8	4	8	7	5	5	43
고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62	3	3	4	0	2	0	5	2	2	1	1	1	2	2	3	3	2	2	3	3	44
대구사학	대구사학회	1969	-	-	-	-	-	-	-	10	6	5	9	24	0	5	12	27	32	10	6	6	152
대동문화연구	성대대동문화연구원	1963	-	10	0	0	15	7	6	0	6	7	3	0	0	8	8	0	8	16	0	7	101
동국사학	동국대	1953	0	4	0	3	9	0	0	4	0	0	0	4	0	0	4	0	0	0	8	21	57
동방학지	연대국학연구원	1954	0	19	0	0	0	12	6	6	6	12	6	3	5	5	3	0	27	12	22	24	168
동서문화	계명대	1967	-	-	-	-	-	9	11	9	12	0	0	16	20	7	10	10	0	12	8	7	131
동아문화	서울대	1963	-	5	5	10	10	4	9	0	7	10	8	5	0	0	7	10	7	6	7	25	135
동양문화	대구대	1960	0	3	0	3	5	0	28	12	3	5	4	0	6	5	9	4	0	5	0	5	97
동양문화연구	경북대	1974	-	-	-	-	-	-	-	-	-	-	-	-	10	9	9	10	15	8	7	9	77
동양사학연구	동양사학회	1966	-	-	-	-	3	3	0	2	1	3	0	3	3	9	4	3	5	3	4	4	50
동양학	단국대	1971	-	-	-	-	-	-	-	-	-	4	6	6	6	6	6	6	6	6	11	10	73
마한백제문화	위광대	1975	-	-	-	-	-	-	-	-	-	-	-	-	-	11	0	10	0	11	0	0	32
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65	-	-	23	18	0	8	10	0	9	14	17	12	15	12	16	0	17	15	16	16	202
미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1960	6	11	3	4	3	0	3	3	4	3	0	2	3	4	7	8	8	7	6	8	93
백산학보	백산학회	1966	-	-	-	-	7	24	10	8	25	10	8	10	9	9	14	15	5	5	0	0	164
백제문화	공주대	1967	-	-	-	-	-	2	4	6	1	3	0	6	0	11	3	5	6	7	6	1	61

(다음에 계속)

학술집지명	발행처	창간년도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총기사수
백제연구	남대	1967	-	-	-	-	-	3	5	7	1	4	9	5	9	11	3	5	6	5	6	8	87
사총	려대	1955	8	5	3	6	4	0	32	3	0	17	0	21	0	5	16	19	0	8	6	6	159
사학연구	국사학회	1958	6	5	29	0	0	6	20	21	0	0	0	8	2	8	0	4	4	3	6	9	131
사학지	국대	1967	-	-	-	-	-	6	5	4	7	5	4	4	4	5	12	5	10	8	7	5	91
성곡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1970	-	-	-	-	-	-	-	-	15	18	16	17	16	17	19	17	15	18	16	14	198
숙대사론	숙명여대	1963	-	3	0	5	0	0	5	6	7	5	6	0	6	6	5	0	0	5	0	0	59
신라가야문화	남대	1966	-	-	-	-	5	0	0	0	4	5	2	4	0	3	6	6	11	0	7	5	58
아세아연구	아세아학술연구소	1958	14	17	21	40	19	32	12	19	47	25	23	20	10	12	17	21	14	16	16	14	409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회	1956	6	5	6	0	6	12	0	15	8	11	0	7	4	12	15	7	15	11	15	7	162
역사학보	역사학회	1952	33	7	16	20	16	19	10	13	15	10	14	13	17	17	14	17	24	16	18	10	319
영남사학	영남여대	1971	-	-	-	-	-	-	-	-	-	3	1	0	2	2	3	0	5	3	0	4	23
이화사학연구	이화여대	1966	-	-	-	-	-	3	5	4	4	0	0	3	0	2	1	1	0	0	0	1	29
전북사학	전북대	1977	-	-	-	-	-	-	-	-	-	-	-	-	-	-	-	5	8	13	10	7	43
진단학보	진단학회	1934	4	5	13	5	20	9	0	8	0	0	13	10	14	13	17	13	6	15	15	22	202
한국고교학보	한국고교학연구회	1976	-	-	-	-	-	-	-	-	-	-	-	-	-	-	4	7	6	3	5	8	33
한국문화연구원총	이화여대	1959	16	15	24	0	47	48	9	21	27	26	22	26	35	26	27	28	24	37	29	17	504
한국문화인류학	문화인류학회	1973	-	-	-	-	-	-	-	-	-	-	-	6	4	5	6	0	5	9	6	0	
한국민속학	민속학회	1969	-	-	-	-	-	-	-	7	10	4	5	3	8	4	4	6	0	7	6	4	68
한국사론	서울대	1973	-	-	-	-	-	-	-	-	-	-	-	6	0	6	6	0	7	6	6	4	
한국사연구	한국사학회	1968	-	-	-	-	-	-	9	9	6	4	13	4	6	6	12	13	15	21	17	16	151
한국학	중앙대	1973	-	-	-	-	-	-	-	-	-	-	-	6	9	16	11	13	12	7	9	7	90
한국학보	일지사	1975	-	-	-	-	-	-	-	-	-	-	-	-	-	4	23	21	11	17	24	25	125
향토서물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57	11	8	13	3	6	3	0	0	0	0	0	0	0	4	3	0	4	9	5	7	79
호남문화연구	전남대	1963	-	6	6	3	8	0	0	0	0	0	0	5	4	6	6	9	0	10	0	0	

주) 0 표시는 미조사 기사수임.

1962-1966년 핵심잡지의 인용빈도

<부록 2>

	역사 학보	※사학 연구	계	기사수	인용 빈도	동국 사학	계	인용 빈도	진단 학보	계	인용 빈도	사총	계	인용 빈도
역사 학보	(27)	4	4	92	0.043	7	11	0.120	9	20	0.217	1	21	0.228
사학연구	6	(7)	6	40	0.150	7	13	0.325	-	-	-	2	15	0.375
아세아연구	4	-	4	111	0.036	-	-	-	1	5	0.045	3	8	0.072
진단학보	5	2	7	47	0.149	1	8	0.170	(6)	-	-	-	-	-
동방학지	2	1	3	19	0.158	-	-	-	1	4	0.211	1	5	0.263
사총	1	3	4	26	0.154	2	6	0.231	-	-	-	(1)	-	-
미술자료	1	-	1	27	0.037	2	3	0.111	-	-	-	-	-	-
고고미술	2	1	3	421	0.007	2	5	0.012	1	6	0.014	-	-	-
동국사학	5	-	5	16	0.313	(3)	-	-	-	-	-	-	-	-
향토미술	-	6	6	38	0.158	2	8	0.211	-	-	-	-	-	-
국사상의 제문제	-	2	2	□	-	-	-	-	-	-	-	1	3	-
역사교육	-	3	3	23	0.130	-	-	-	-	-	-	-	-	-

주) ()속의 숫자는 자체인용숫자임. ※ 표시는 1964년도 판임. □표시는 미조사자료임.

1967-1971년 핵심잡지와 인용빈도

< 부록 3 >

역사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 사화 학
역사학	15	6	6	6	67	0.091	4	10	0.152	16	26	0.394	2	28	0.424	13	41	0.621		
진단학	3	2	5	5	17	0.294	-	-	-	3	8	0.471	-	-	-	2	10	0.588		
백산학	4	2	6	6	77	0.078	1	7	0.091	3	10	0.130	1	11	0.143	(5)				
아세아연구	1	6	7	7	135	0.052	-	-	-	3	10	0.074	-	-	-	2	12	0.089		
한국사연구	3	-	3	3	28	0.107	1	4	0.143	(5)			-	-	-	-				
역사교육	4	1	5	5	46	0.109	(5)	-	-	-			-	-	-	1	6	0.130		
사학연구	4	(6)	4	4	47	0.085	2	6	0.128	3	9	0.191	1	10	0.213	8	18	0.383		
동국사학	1	1	2	2	4	0.500	1	3	0.750	1	4	1.000	-	-	-	-				
사회지	1	1	2	2	□		1	3		1	4		1	5		-				
고문화	1	-	1	1	10	0.100	-	-	-	4	5	0.500	-	-	-	3	8	0.800		
미술자료	1	-	1	1	13	0.077	-	-	-	-			-	-	-	3	4	0.308		
고고학	2	-	2	2	8	0.250	1	3	0.375	1	4	0.500	-	-	-	2	6	0.750		
한국문화연구원총사	1	-	1	1	131	0.008	-	-	-	-			1	2	0.015	1	3	0.023		
동방학지	1	4	5	5	52	0.096	-	-	-	1	6	0.115	-	-	-	3	9	0.173		
고고미술	-	1	1	1	42	0.023	-	-	-	1	2	0.048	-	-	-	1	3	0.170		
아세아학보	-	15	15	15	160	0.094	-	-	-	1	16	0.100	1	17	0.106	-				
동아문화	-	-	-	-	□		-	-	-	1	1		-	-	-	4	5			
한국문화인류학	-	-	-	-	30		-	-	-	1	1	0.033	-	-	-	2	3	0.100		
향토서술	-	-	-	-	□		-	-	-	1	1		1	2		2	4			
	-	-	-	-	9		-	-	-	-	-		-	-	-	4	4	0.444		

주) ※표시는 1969년도 판임. □표시는 미조사 자료임.

1972-1976년 핵심잡지의 인용빈도

역사학 분야	역사학 연구	계	기사수	인용 빈도	한국사 연구	계	인용 빈도	백산 학보	계	인용 빈도	진단 학보	계	인용 빈도	사원	계	인용 빈도
역사학 보	(33)	3	75	0.042	18	21	0.296	31	52	0.732	22	74	1.042	3	77	1.085
진단학 보	14	1	15	0.224	11	26	0.388	5	31	0.463	(4)			4	35	0.522
사총	4	4	42	0.095	2	6	0.143	3	9	0.214	-			-		
역사교육	2	1	3	0.063	3	6	0.125	8	14	0.292	2	16	0.333	2	18	0.375
백산학 보	4	4	50	0.160	9	17	0.340	(11)			1	18	0.360	-		
아세아연구	4	4	82	0.049	7	11	0.134	5	16	0.195	-			-		
동양학	2	2	30	0.067	1	3	0.100	1	4	0.133	1	5	0.167	-		
한국사연구	18	2	41	0.488	(8)			13	33	0.805	-			1	34	0.829
동방학지	4	4	22	0.182	1	5	0.227	2	7	0.318	1	8	0.364	-		
고고미술	3	4	89	0.045	5	9	0.101	10	19	0.235	-			7	26	0.292
고고학	1	1	3	0.333	1	2	0.666	1	3	1.000	-			-		
문화재	4	4	67	0.060	3	7	0.104	3	10	0.149	-			1	11	0.164
한불연구	1	1	17	0.059	-			2	3	0.176	1	4	0.235	-		
사학연구	2	(3)	18	0.111	5	7	0.389	7	14	0.778	-			3	17	0.944
동양문화연구	2	2	28	0.071	-			-			1	3	0.107	-		
고문	1	1	9	0.111	3	4	0.444	1	5	0.556	1	6	0.667	-		
사원	2	2	14	0.143	3	5	0.357	1	6	0.429	-			1	7	0.500
사학지	3	3	29	0.103	1	4	0.138	2	6	0.207	-			1	7	0.241
대동문화연구	2	1	19	0.158	1	4	0.211	-			1	5	0.263	1	6	0.316
동아문화	-	1	20	0.050	1	2	0.100	4	6	0.300	1	7	0.350	-		
한국학보	-	-	27		3	3	0.111	1	4	0.148	-			-		
호남문화연구	-	-			2	2		2	4		-			-		
문화유산	-	-			5	5		15	20		-			-		
건대사학	-	-	14		3	3	0.214	-			-			-		
미술자료	2	2	16	0.125	-			4	6	0.375	-			1	7	0.438

주) □표시는 미조사 자료임.

1977-1981년 핵심잡지의 인용빈도

역사 학보	역사 연구	계	기사수	인용 빈도	진단 학보	계	인용 빈도	백산 학보	계	인용 빈도	한국 사본	계	인용 빈도	한국사 연구	계	인용 빈도
역사학보 (46)	5	5	111	0.045	43	48	0.432	9	57	0.514	21	78	0.703	30	108	0.973
한국학보	2	13	98	0.133	9	22	0.224	6	28	0.286	6	34	0.347	5	39	0.398
대구사학	3	4	81	0.049	3	7	0.086	1	8	0.099	3	11	0.136	4	15	0.185
역사교육	7	8	55	0.145	6	14	0.254	-	-	-	3	17	0.309	3	20	0.364
진단학보	15	18	71	0.254 (13)	4	14	0.467 (2)	1	19	0.288	11	30	0.423	15	45	0.634
백산학보	8	10	30	0.333	4	14	0.467 (2)	-	-	-	-	-	-	15	29	0.967
사학연구	6	6	26	0.231 (12)	5	11	0.423	4	15	0.577	1	16	0.615	6	22	0.846
한국사연구	6	10	82	0.122	15	25	0.305	1	26	0.317	12	38	0.463 (18)	-	-	-
향토서술	1	2	25	0.080	-	-	-	-	-	-	-	-	-	1	3	0.120
고고미술	6	7	125	0.056	1	8	0.064	1	9	0.072	-	-	-	7	16	0.128
한국고고학보	6	6	29	0.207	-	-	-	-	-	-	1	7	0.241	-	-	-
문화유산	8	8	□	-	-	-	-	-	-	-	1	9	-	4	13	-
고고학	6	6	□	-	-	-	-	-	-	-	2	8	-	2	10	-
동양사학연구	2	2	19	0.105	1	3	0.158	-	-	-	-	-	-	-	-	-
부대사학	4	4	□	-	-	-	-	-	-	-	-	-	-	1	5	-
백제문화	5	5	25	0.200	-	-	-	-	-	-	-	-	-	5	10	0.400
고고문화	1	2	13	0.154	-	-	-	-	-	-	-	-	-	2	4	0.308
사학지	2	2	35	0.057	1	3	0.086	-	-	-	2	5	0.143	5	10	0.200
한국문화연구원논문총	3	3	135	0.022	-	-	-	-	-	-	-	-	-	-	-	-

(다음장에 계속)

< 부록 5 >

주) □표시는 미조사 자료임.

동	역사 확보	사화 연구	계	기사수	인용 빈도	진단 확보	계	인용 빈도	백산 확보	계	인용 빈도	한국 사론	계	인용 빈도	한국사 연구	계	인용 빈도
동 방 학 지	1	-	1	85	0.012	-	-	-	-	4	0.047	3	4	0.047	8	12	0.141
사 총	1	4	5	39	0.128	-	-	1	1	6	0.154	-	6	0.154	5	11	0.282
아 세 아 연 구	2	2	4	91	0.044	-	-	1	1	5	0.055	1	6	0.066	4	10	0.110
문 화 재	1	3	4	64	0.063	-	-	3	3	7	0.109	-	7	0.109	3	10	0.156
마 한 백 세 문 화	2	-	2	21	0.095	-	-	-	-	-	-	-	-	-	1	3	0.143
동 서 문 화	1	-	1	55	0.018	3	4	0.073	1	5	0.091	1	6	0.109	3	9	0.164
대 동 문 화 연 구	-	2	2	31	0.065	6	8	0.258	-	-	-	2	10	0.323	2	12	0.387
동 양 문 화	-	1	1	14	0.071	-	-	-	-	-	-	3	4	0.286	3	7	0.500
한 국 사 론	-	6	6	23	0.261	6	12	0.522	1	13	0.565 (7)	-	-	-	3	16	0.696
동 국 사 학	-	4	4	29	0.138	-	-	1	1	5	0.172	-	-	-	1	6	0.207
한 국 민 속 학	-	3	3	23	0.130	-	-	3	3	6	0.261	-	-	-	1	7	0.304
문 화 인 류 학	-	1	1	□	-	1	2	-	-	-	-	-	-	-	1	3	-
역 사 학 연 구	-	3	3	25	0.120	1	4	0.160	-	-	-	-	-	-	1	5	0.200
신 라 가 야 문 화	-	-	-	23	-	-	-	-	2	2	0.087	-	-	-	2	4	0.174
성 국 문 총	1	-	1	80	0.013	1	2	0.025	-	-	-	1	3	0.088	-	-	-
아 세 아 학 보	1	-	1	□	-	1	2	-	-	-	-	-	-	-	1	4	-
전 북 사 학	-	-	-	43	-	2	2	0.047	-	-	-	1	3	0.070	-	-	-
영 남 사 학	-	-	-	12	-	-	-	-	1	1	0.083	1	2	0.167	1	3	0.250

참 고 문 헌

- Brodus, R. N. "An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of Bibliographic Citation." *JASIS*, Vol. 34, 1983, pp. 236-243.
- Brookes, Bertram C. "Numerical Methods of Bibliographic Analysis." *Library Trends*, Vol. 22, 1973, pp. 18-43.
- Buxton, A. B. and A. J. Meadow. "The Variation in the Information Content of Titles of Research Papers with Time and Discipline." *Journal of Documentation*, Vol. 33, 1977, pp. 46-52.
- Cawkell, A. E. "Evaluating Scientific Journals with Journal Citation Reports." *JASIS*, Vol. 29, 1978, pp. 41-46.
- Chubin, Daryl E., Porter, Alan L., and Frederick A. Rossini. "Citation Classics Analysis: An Approach to Characterizing Interdisciplinary Research." *JASIS*, Vol. 35, 1984, pp. 360-368.
- Cole, Jonathan and Stephen Cole. "Measuring the Quality of Sociological Research: Problems in the Use of the Science Citation Index." *The American Sociologist*, Vol. 6, 1971, pp. 23-29.
- Diener, Richard A. V. "Informational Dynamics of Journal Article Title." *JASIS*, Vol. 35, 1984, pp. 222-227.
- Donahue, J. C. "A Bibliometric Analysis of Certain Information Science Literature." *JASIS*, Vol. 23, 1972, pp. 313-317.
- Garfield, Eugene. *Journal Citation Reports, Vol. 7 of Science Citation Index*. Philadelphia: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1983.
- "Citation Analysis as a Tool in Journal Evaluation." *Science*, Vol. 178, 1972, pp. 471-479.
- "What Scientific Journal Can Tell us About Scientific Journals." *IEEE Transaction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Vol. PC-16, 1973, pp. 200-203.
- Hirst, Graeme. "Discipline Impact Factors: A Method for Determining Core Journal List." *JASIS*, Vol. 29, 1978, pp. 171-172.
- Hirst, Graeme and Talent. "Computer Science Journals An Iterated Citation Analysis." *IEEE Transaction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Vol. PC-20, 1977, pp. 233-238.
- Kent, Allen, ed. "Citation Index." Vol. 5 of *Encyclopedia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1985. pp. 16-40.
- Lawani, S. M. and A. E. Bayer. "Validity of Citation Criteria for Assessing the Influence of Scientific Publications: New Evidence with peer Assessment." *JASIS*, Vol. 34, 1983, pp. 60-66.
- Murugesan, Poovanaligam and Michael J. Moravcsik. "Variation of the Nature of Citation Measures with Journals and Scientific Specialities." *JASIS*, Vol. 29, 1978, pp. 141-147.
- Oppenheim, Charles and Susan P. Renn. "Highly Cited Old Papers and the Reasons why they Continue to be Cited." *JASIS*, Vol. 28, 1978, pp. 225-231.
- Oromaner, Mark. "The Diffusion of Core Publications in American Sociology." *JASIS*, Vol. 28, 1977, pp. 34-37.
- Pope, Andrew. "Bradford's Law and the Periodical Literature of Information Science." *JASIS*, Vol. 26, 1975, pp. 207-213.
- Price, Derek de Solla. "The Citation Cricle." *Key Papers in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 ASIS, c1980, pp. 195-211.
- Rosenberg, Victor. "The Scientific Premises of Information Science." *JASIS*, Vol. 25, 1974, pp. 263-269.
- Saracevic, Tefko and Lawrence J. Perk. "Ascertaining Activities in a Subject Area Through Bibliometric Analysis." *JASIS*, Vol. 24, 1973, pp. 120-134.
- Shaw, Debora and Charles H. Davis. "Entropy and Information: A Multidisciplinary Overview." *JASIS*, Vol. 34, 1983, pp. 22-25.
- Subramanyan, K. "Core Journals in Computer Science." *IEEE Transaction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Vol. PC-19, 1976, pp. 22-25.
- White, H. D. and B. C. Griffith. "Author Co-Cit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ASIS*, Vol. 32, 1981, pp. 161-171.

Williams, James G. and Chai Kim. "On Theory Development in Information Science." JASIS, Vol. 26, 1975, pp. 3-9.

Xhignesse, Louis V. and Charles E. Osgood.

"Bibliographical Ci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sychological Journal Network in 1950 and in 1960." American Psychology, Vol. 22, 1967, pp. 778-791.